

# 미국 “중국은 인신매매 최악 국가”

## 탈북자 강제 송환 ‘눈엣가래’

## 북핵 해결 위한 압박인 듯

## 북한 15년 연속 최하등급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위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對)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대표적 ‘불량국가’로 꼽는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틸라스 장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강제 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행위를 비난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노동자는 5만~8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돈을 벌며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분류한 이 보고서가 북핵과 관련한 대북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적절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모두 36개국이다.

연합뉴스

## 러·유럽 정부·기업에 동시다발 사이버공격



## 러시아·미국... 동시다발 랜섬웨어 공격

러시아와 유럽의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기관이 27일(현지시간) 동시다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일부 시스템은 장애를 벗어나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사이버공격은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스네프트를 시작으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에서 거의 동시에 확인됐다.

우크라이나는 정부 전산망과 키예프 공학·지하철, 은행권 등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오샤드뱅크’ 등 일부 국영은행, ‘우크르에네르조’ 등 전력기업, ‘우크르텔레콤’ 등 통신기업, 미디어 그룹 해킹 목표물이 됐다.

장애가 발생한 은행에서는 지점 영업과 현금지급기 가동이 중단됐다. 체르노빌 방사능감지시스템도 공격을 받았다.

파벨 로젠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로스네프트 외에 러시아 철강 기업 에브라즈(EVRAZ)도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운사 A.P.몰러머스크, 영국의 광고기업 WPP, 프랑스 제조업체 생고뱅 등이 대대적인 공격에 노출됐다. 머스크의 컨테이너 터미널 17곳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약기업 머크도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들은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한 뒤 암호 해독 키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러시아 스캔들’ 오바마 몰랐나

## 책임론에 트럼프 되레 큰소리



미국 정가를 강타한 ‘러시아 스캔들’ 규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사진) 전 대통령을 의회 증언대에 세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물 정치인인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러한 주장을 꺼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의 개입을 알고도 낙장대처를 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면서 “상·하원 의회 상임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불러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 언제 알았는지 먼저 하에 증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하고 통하지 않자 그를 경질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은 WP의 보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오바마 때리기를 이어왔다.

그는 26일에도 3건의 트윗을 통해 “오바마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통지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데다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내무부와 대법원 상공에 탈취된 경찰 헬기가 나타나 기총사격 한 뒤 수류탄 2발을 떨어뜨렸으나 불발했다고 밝혔다. 공습 직후 온라인에선 반정부 구호가 적힌 배너를 단 남성(가운데)이 마두로의 폭압에 항거하라고 종용하는 영상이 나와 반정부 인사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스카 페레스 인스타그램 캡처>

## 베네수엘라 내전 차단나... 정부 헬기 피격

## 인명피해 없어...반정부 세력 추경

정정 불안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에서 27일(현지시간) 헬리콥터 한 대가 정부 청사와 대법원을 공습했다고 AP·AFP·dpa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상공에 탈취된 경찰 헬기가 나타나 대법원 사무실 방향으로 기총사격을 한 뒤 수류탄 2발을 떨어뜨렸으나 불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대통령궁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성향 언론과 대담 중이던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현 정권을 뒤 흔들려는 테러 공격”이라며 곧바로 대공 방어 체제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헬기 공습을 실행한 주체를 반정부 시위 세력으로 규정한 마두로 대통령은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며 “조만간 이번 테러 공격을 강행한 이들을 체포하겠다”고 선포했다.

테러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습 직후 온라인에선 반정부 구호가 적힌 배너를 단 푸른색 경찰 헬기 사진과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마두로의 폭압에 항거하라고 종용하는 영상이 나와 반정부 인사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마두로 대통령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미겔 로드리게스 토레스 전 내무장관 밑에서 헬기 운전사로 일한 적이 있다며 토레스 전 내무장관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3월 말부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지금까지 70명 이상이 숨지는 등 극심한 혼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미국 품고 중국에도 러브콜

## 아시아인프라사업 연계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협력할 의사를 비췄던 일본이 중국의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도쿄에서 정례 차관급 회의를 갖고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일대일로와 일본이 추진해온 인프라 수출정책인 ‘고품질 인프라시설 동반 관계’를 결합해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 사업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지난 1개월 사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 강연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충분히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조건이 맞다면 일대일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인프라 사업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을 전제로 일대일로

가 환태평양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에 바람직한 형태로 융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IB가 내부 관리능력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다면 일본도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인프라사업 협력을 구체화하며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이 중국산 탄소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제3국 가격이 아닌 중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정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국 가격 적용조항을 끝내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했지만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아직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

중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보호, ‘현대적 서비스업’, 지식재산권, 자동차 유통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7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근린시설] 광주 남구 송화동 6층건물 대지457㎡ 건물 1640,12㎡ 감정가 12억 2천7백 ▶ 최저가 8억6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지2,580㎡ 건물 1,710,74㎡ 감정가 17억8천5백만 ▶ 최저가 12억5천
- ★ [공장] 광주 북구 오선동 대지 8,419.4㎡ 건물 5,746,07㎡ 감정가 89억9천9백5십만 ▶ 최저가 89억9천9백5십만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27억4천5백
- ★ [공장] 전남 장성군 황용면 월평리 대지 2,363㎡ 건물 2,489,2㎡ 감정가 25억2천9백5십만 ▶ 최저가17억7천6십만
- ★ [실버타운,전원부지]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14억 1백만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최저가 3억5천8백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